일 주 문



해인사 여름수련회

향적 합천 해인사 주지 스님은 7월 19일 경내 일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인사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어린이 숲속마을 캠프

월우 해남 대흥사 주지 스님은 7월 21일 대흥사 일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 어린이 숲속마을 캠프'를 개최한다.



수도권 삼사순례

효재 팔공산 구룡사 주지 스님은 7월 2일 서울 조계사 · 봉은사 · 화성 용주사 삼사순례를 실시한다.



진관사 보살계 수계법회

계호 서울 진관사 주지 스님은 7월 2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을 수계사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아시아연구協 컨퍼런스 다도

박동춘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6월 24~26일 고려대 엘지-포스코홀에서 열린 아시아연구협회 컨퍼런스서 한국 차문화를 소개했다.

"연등회 환희, 모두의 정성 덕분"

연등회보존위, 2017 연등회 참가단체 시상



올해 연등회를 환희의 도가니로 이끌었던 개인 및 참가단체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가 열렸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2017 연등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연등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개인과 단체에 표창패 등을 전달했다.〈사진〉

시상 부문은 △정진상 △보현상 △원력상 △특별상 △표창패 등으로 나뉘었으며, 한마음선원 합창단을 비롯한 30여 개인 ·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자리서 연등회보존위원회 집행위원장 지현 스님(조계종 총무부장)은 치사에서 "행렬등이 단체 특성에 맞게 제작되고, 참가자들은 장엄등을 직접 만드는 등 아낌없는 열정이 곳곳에 담겼다. 시민과 외국인들의 깊은 감동과 호응에서 많은 걸 엿볼 수 있었다"며 "현재 연등회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여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은 제2의 고향 오불도 반환 당연한 일"

Interview

송광사 오불도 반환한 로버트 마리엘리 씨

도난 성보문화재 반환 '쾌모델'
"송광사 오불도, 여행 끝내고 자기 집 찾아가서 기쁠 따름"
30년 서울서 살며 문화재 수집
"옛 것 소중함 몰라 시작했다"

"한국은 제2의 고향입니다. 제가 수집했던 문화재가 도난문화재임을 알고 이것이 빨리 제자리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송광사 오불도가 자기 집을 돌아가서 기쁠 따름입니다."

도난 성보인 '송광사 오불도'를 보관하다 반환한 로버트 마티엘리(92 · 사진) 씨는 6월 20일 기자간담회서 그간의 소회에 대하 이 같이 술회했다.

마티엘리 씨가 스스로 한국을 '제2의 고향'이라고 밝힌 것은 인생의 1/3을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가 미군 공예 · 미술품 관리 및 강사로 서울에 온 것은 1958년 7월이다. 미국으로 돌아간 1988년까지 약 30년을 그와 그의 가족은 한국에서 살았다.

"한국에서 부인 산드라를 만나서 서울시청에서 결혼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컸습니다."

그가 살았던 집은 조계사 인근 벽돌집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 같이 조계사 주변이 아름답지 않았다고 했다. 오랜만에 찾은 한국의 변화상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한국에 다시 와 기쁩니다. 한국사회가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는 데 새삼 놀랐습니다."

종로에 살았던 마티엘리 씨는 자주 인사동을 찾아 한국의 전통 공예품을 수집했다. "투박하지만 손으로 제작한 공예품을 선호했다"는 마티엘리 씨는 1970년대 초 안국동의 한 가게에서 목가구 안에 구겨진 채로 있던 오불도를 발견했다. 구매를 위해 다시 찾았을 때 목가구는 팔리고 오불도만 남아있었다. 마티엘리 씨는 이를 구입해 보존처리 전문가를 통해 수리했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는 자택에 걸어 놓았다.

"나이가 들어 퇴직해 집을 좀 줄이려고 대형 문화재들은 박물관에 기증하려 했어요. 그런데 감정한 결과 도난 문화재라고 하더군요. 원래 도난품이었다는 것을 알고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문화재 수집'에 대해서도 철저한 철학을 가졌다. 문화재 수집도 근대화되면서 한국도 미국도 옛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데 실망했기 때문이다.

"저희 할아버지 시절은 미국의 근대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는 예전의 소중한 것들을 쉽게 버렸습니다. 1950년대 찾은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르게 근대화가 되면서 옛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공예품을 수집한 것은 버려지는 옛 것을 보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로버트 마티엘리 씨와 부인 산드라, 브라이언 페리소 포틀랜드 박물관장, 메리베스 그레이빌 포틀랜드 박물관 큐레이터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도난 문화재라고 해도 돌려주겠다는 마음을 갖기 힘들다. 흔쾌히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도난 문화재 반환의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한편, 송광사 성보박물관은 6월 24일 개막하는 특별전에서 송광사 오불도를 불조전에 봉안돼 있는 다른 불화들과 함께 선보였다. 이에 앞서 23일에는 마티엘리 씨 일행을 초청해 오불도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 관련 A9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제32회 不二賞 김경래·유재환 수상

7월 5일 시상식, 상금 각 2000만원

제32회 불이상 수상자로 김경래 동국대 외래교수(연구)와 유재환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주임교수(실천)가 선정됐다.

여성재가불자모임 불이회(회장 홍라희)는 "제32회 불이상 수상자로 김경래 · 유재환 교수를 선정했다"고 6월 22일 밝혔다.

연구분야에 선정된 김경래 교수는 인도종교 및 초기 · 부파불교 전공자로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지속적으로 연구논문을 게재, 국내외 학회 활동을 하며 연구성과를 인정받았다. 불이회 측은 "국내는 물론 해외 학계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불교연구 세계화에 앞장서는 차세대 연구자로 장래가 촉망된다"고 평가했다.


김경래


유재환

실천분야 수상자인 유재환 교수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종단 구호 및 전국병원불자연합회 활동 등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널리 전파하며 포교에 공헌한 점이 인정됐다. 시상식은 7월 5일 개최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 20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한편 불이상은 한국불교계 참신하고 훌륭한 불교인을 독려하고, 한국불교 중흥의 선구적 역군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자 1985년 제정됐다. 연구분야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원 · 시간강사 · 연구교수 · 강의교수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자격요건으로 제한해 유망학자 발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천분야는 선행과 포교서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한다. 올해 포함 총 92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33관음성지순례 조계사서 회향



33관음성지순례 내국인 순례단 27명이 조계사에서 마지막으로 회향했다. 33관음성지순례사업은 2008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개발한 문화관광상품으로, 한국의 '관음사찰' 33곳을 순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순례단 참가자는 조계사기본교육(55학번) 수료자들로 지난 2013년 시작해 6월 17일 조계사를 마지막으로 순례를 회향했다. **박아름 기자**

동명불원, 어르신 추억 만들기



부산 동명불원(주지 화랑)이 지역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나들이 봉사에 동참했다.

동명불원은 6월 21일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25여 명과 함께 거제도로 여행을 떠났다. 어르신들과 함께 동명불원 봉사자들은 거제도 양지암조각공원과 알로에테마파크를 관람하고 비누만들기 체험 등을 진행했다.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연수교육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6월 20~21일 대구 평산아카데미 연수원 본관 리더스홀에서 응공조계종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종정 법운 스님은 "수행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마음이 행으로 실천될 때 가능하다"며 "오늘 동참한 종도 스님들은 스스로 깨달음의 주체가 되어 경계에 휘둘리지 말고, 환희가 넘치는 진리의 세계인 근본 자리를 용맹심으로 찾아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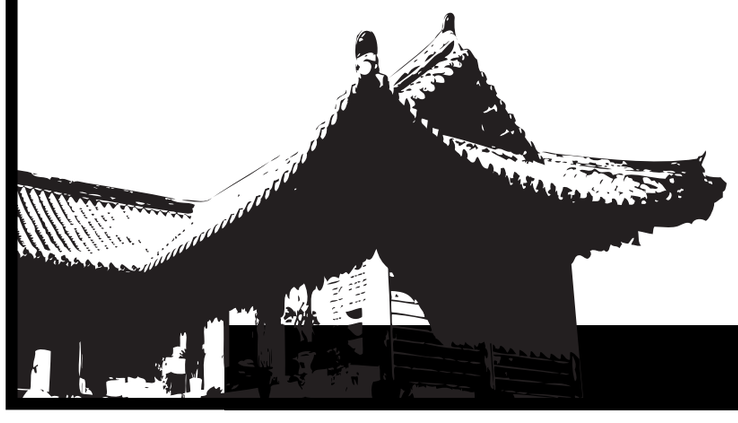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